

# 늦은 결혼에…‘30대 후반~40대’ 초산 20년간 1.7배 증가

광주 2024년 초혼 평균 31.5세·전남 30.81세…4.15세·4.42세 상승

30대 후반이 최근 2년간 출산율 상승 주도…난임 지원 정책 등 효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광주·전남에서 20대~30대 초반 엄마의 출생아가 20년간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30대 후반~40대 출산은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광주·전남 20대~30대 초반 엄마가 낳은 아기는 9752명이었고, 30대 후반~40대 엄마의 출생아는 4460명으로 집계됐다.

20년 전(2004년) 20대~30대 초반 엄마가 낳은 아기는 2만8489명으로, 65.8%(1만8737명)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후반~40대 엄마의 출생아는 49.7%(1481명) 늘었다.

같은 기간 엄마의 연령대별 ‘첫째 출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전남 지역 20대~30대 초반 엄마의 첫째 출생아 수는 1만3402명에서 6123명으로 반토막(54.3%)이 났고, 30대 후반~40대 엄마의 첫째 출생아는 683명에서 1895명으로 1.7배 늘었다.

엄마의 연령대별 출산 양극화는 출산율에도 투영됐다.

지난해 광주 30대 초반(30~34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68.0명으로, 20년 전(2004년) 81.7명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8.5명에서 40.5명으로 크게 올랐다.

여성의 출산 시기가 점차 늦춰지는 건 결론이 늦어지는 것과 연관 깊다.

2024년 기준 지역 여성의 평균 초혼 나이는 광주 30대 초반(30~34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68.0명으로, 20년 전(2004년) 81.7명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8.5명에서 40.5명으로 크게 올랐다.

주 31.50세·전남 30.81세로, 20년 전(광주 27.35세·전남 26.39세)보다 각각 4.15세·4.42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아내가 20대~30대 초반일 때 초혼 건수는 1만3487건에서 8312건으로, 38.4%(5175건) 줄었다. 30대 후반~40대 아내의 초혼 건수는 361건에서 1506건으로 4.2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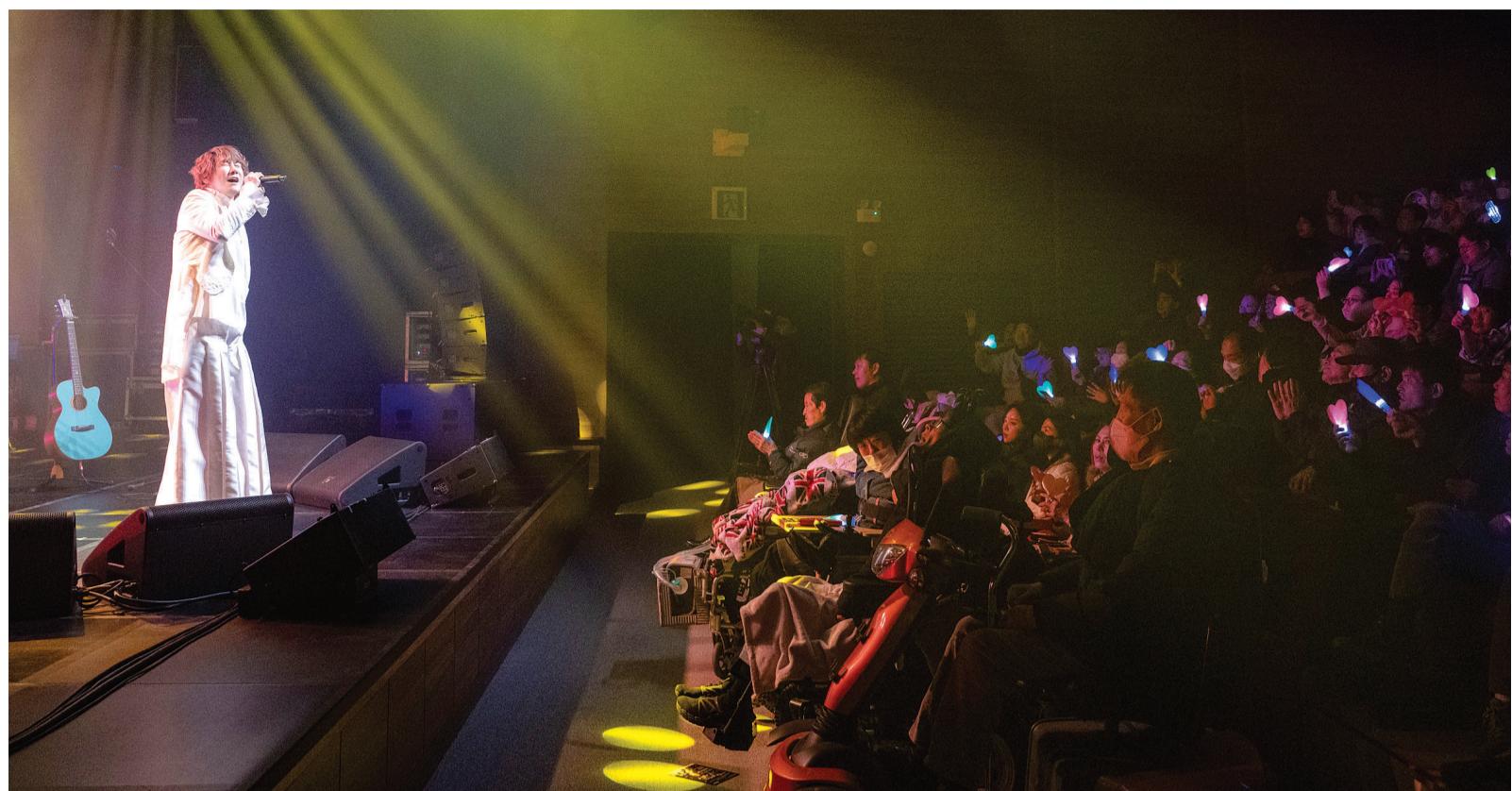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지난달 말 발표한 ‘최근 출산을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는 “최근 2년간 출산율 상승은 30대 여성 중 특히 30대 후반(35~39세)에서 주도했다”며 “만혼, 만산 경향이 지속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기업자격(직장·지역) 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기업자가 출산율을 이끌었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오른 데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본인 부담 경감 등 난임지원 강화 정책의 영향을 꼽았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출생아 수는 1만4032명(광주 6016명·전남 80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837명) 늘었다. 광주 출생아는 전년보다 7.7% 늘었고, 전남은 5.4% 증가했다. 이 기간 광주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21년 이후 4년 만이며, 전남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애인 차별 허문 김장훈 ‘누워서 보는 콘서트’

가수 김장훈이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구 서빛미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 ‘누워서 보는 콘서트’에서 객석의 중증장애인 및 가족들과 소통하며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대학 출범 초읽기

세부 이행 과제 점검 등 마무리 작업 착수…다음 달 중순 출범식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3월 1일 통합대학 출범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8일 목포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통합대학 출범을 위한 세부 이행 과제를 점검했다.

두 대학은 지난해 5월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승인을 받은 이후 통합대학 5개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교육부 중간점검 등을 거치며 출범 준비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날 9차 회의에서는 학적 개정을 통한 조직 정

비, 전남도립대 재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절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목포대는 3월 중순께 목포대 70주년기념관에서 통합대학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대는 통합을 통해 국내 최초로 2년제와 4년제 학위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 산업 수요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재와 연구 기반 고급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를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이번 통합을 통해 국립 목포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7개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학적 개정과 경과조치 마련 등 남은 절차를 치질 없이 수행해 2026년 3월 안정적인 통합대학 출범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4**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광주 도심 BRT 도입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전환

〈지하철 같은 버스〉

453억 투입 2028년 말 운행 목표…백운광장~매곡동 8.67km 연결

광천동 일대 정체 해소 기대…효천~일곡·운암~각화 신규 노선도 제안

광주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승용차 위주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백운광장~매곡동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이 노선이 완성되면 광천권역을 포함한 남북 축의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 전문가와 경찰청, 자치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권 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밀그림을 확정했다.

백운~매곡 BRT 노선은 남구 옛 대동고등학교에서 시작해 백운교차로, 농성교차로, 광천사거리

리, 경신여고사거리로 거쳐 북구 광주공고에 이르는 총 8.67km 구간이다.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는 전용 주행로와 전용 교차로, 정류장 등의 시설을 갖춘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 이 구간에 BRT 전용 도로를 깔고 교통 신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정류장은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버스 승강장과 가까운 41곳에 마련된다.

운행 차량으로는 친환경 저상버스 7대가 투입되며, 배차 간격은 15분으로 설정해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BRT 구축이 완료되면 버스의 평균 통행 속도가 현재 시속 16.6km에서 21.4km로 29% 빨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통행 시간 단축 효과에 힘입어 이용객 수요 또한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광천동 터미널 주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반영한 추가 노선안도 제시됐다. 용역사는 백운~매곡 라인과 연계되는 ‘효천~일곡 노선’(6.0km)과 서북부 권역을 잇는 ‘운암~각화 노선’(8.4km)을 신규 제안했다. 시는 이들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BRT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 고시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도, 부이사관·국장급 수시 인사 단행

서형빈 부이사관 행안부 파견…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 발령 등

서형빈(사진)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팀 당관이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행정안전부로 파견된다. 전남도는 9일자로 서부이사관을 비롯, 국장급(3급) 및 과장급(4급) 승진과 팀장급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21면〉

최남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과 정재용 등 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은 각각 4급으로 승

진, 발령됐다.

박종필 전남도 인재개발원장이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이 차지 행정국장으로, 고미경 차지 행정국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정읍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 1. 1. 전국 시행]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

기부혜택 ①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 공제(현행과 동일)  
※ (2026년부터) 10~20만 원 44% 세액 공제 / 20만 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② 담례품 제공(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 원 이내(모든 지자체 기부금액 합산 기준)

\* 10만 원 기부하시면 13만 원을 돌려드립니다.(10만 원 세액공제+3만 원 담례품)

## 어떻게 기부하나요?

### 온라인 기부하기

간편하고 빠르게! PC, 핸드폰 모두 가능!

5개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기부 가능

#### 회원가입

① 고향사랑e 접속

② 회원가입 (카카오톡 연동)

#### 기부하기

③ ‘기부하기’ 클릭

④ ‘정읍’ 선택 후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 담례품 받기

⑤ 정읍시 담례품복’ 클릭

⑥ 담례품 구경 및 주문하기

(문 앞 배송 원료)

### 오프라인도 가능!



PCLN 핸드폰에서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 NH농협은행을 방문해주시면 오프라인 납부 및 고향사랑e를 안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09:00 ~ 16:00) ※ 신분증 지참

### 지금 기부하기



### 담례품 현황

한우, 쌀, 귀리, 잡곡, 만감류(홍예향), 토마토, 태추단감, 블루베리

쌍화차, 고추가루, 참기름, 들기름, 전통주, 감식초, 지황제품, 등근마춤, 복분자주, 김치, 오트밀&그래놀라, 블루베리잼, 블루베리즙, 증류식 소주

기능성 샴푸, 헤어팩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류형 정읍사랑상품권

※ 2026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제 스페 “설” 이벤트 : 기간(2026. 2. 1~2. 22), 대상(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당첨자(100명), 경품(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



정읍시 | 시민소통실 대외협력팀 ☎ 063) 539-5067~8